

1930년대 교육자를 형상한 소설문학의 특성

지 선 아

민족수난기 우리 소설문학에는 노동자,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그들의 항거의식을 형상한 작품들과 함께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교육자들을 형상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우리의 교원, 인테리들은 일본제국 주의자들로부터 흑심한 민족적 압박과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때에는 조선의 교원, 인테리들이 우리 나라 역사나 지리를 연구하는것도 <죄>로 되었으며 그들에게는 과학과 진리를 탐구할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김일성전집》 제2권 286페이지)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였으며 진보적인 교육자들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이러한 사회력사적환경과 현실로부터 진보적인 교육자들을 형상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정체를 폭로하고 우리 인민의 애국적기개를 보여주는 소설작품들이 창작되었다.

특히 교육자를 형상한 소설들은 1930년대에 이르러 자기의 새로운 발전면모를 보여주고있다.

1930년대 이전시기 교육자의 형상은 극히 부분적으로 미약하게 창작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교육자를 형상한 소설작품창작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의의있는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 시기 교육자들을 형상한 문학작품창작이 활발해질수 있는 요인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데 있다. 또한 진보적인 작가들이 교육자의 생활체험을 가지고있으면서 자기들의

가까이에서 소재를 잡은것과 관련된다.

1930년대에 교육자를 형상한 소설창작이 활발해지면서 그 형식과 내용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올라서고 많은 작품들이 창작발표되었다.

대표적인 작품들은 심훈의 장편소설 《상록수》(1935), 엄홍섭의 중편소설들인 《정열기》(1936), 《명암보》(1937)와 단편소설들인 송영의 《야학선생》(1932), 《월파선생》(1936), 《음악교원》(1937), 《문서》(1938), 엄홍섭의 《가책》(1935), 《아버지소식》(1936)과 유진오의 《김강사와 교수》(1935), 김소엽의 《딱한 자식》(1936), 현경준의 《소년록》(1939), 리무영의 《도전》(1939), 함대훈의 《체조교사》(1939) 등이 있다.

이 시기 교육자를 형상한 소설들은 몇가지 특성을 가지고있다.

1930년대 교육자를 형상한 소설문학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민족의 미래를 키우는 데 헌신하는 교육자의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압박과 무권리속에서도 애국의 마음을 안고 민족의 미래를 키우는 문제는 진보적인 교육자의 형상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장편과 중편, 단편소설 등 다양한 형태로 창작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장편소설 《상록수》와 중편소설들인 《정열기》, 《명암보》, 단편소설들인 《딱한 자식》, 《소년록》을 들수 있다.

장편소설 《상록수》는 실재하였던 농촌계몽운동에 토대하여 선진적인 리상과 지향을 지니고 그 실현을 위하여 농민들을 깨우치고 아이들을 배워주는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선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교육자들인 동혁과 영신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중편소설들인 《정열기》와 《명암보》는 한

작품의 전, 후편을 이루면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는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교육자들인 김영세와 문서방의 형상을 창조하고 정의와 량심, 진리가 짓밟히고 돈과 권세가 득세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있는 작품이다.

단편소설 《딱한 자식》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교의 교사를 그만두고 면서기로 들어가라는 권고와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배움을 갈망하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하여 비오는 길을 걸어 학교로 가는 한 문학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있다.

단편소설 《소년록》은 불행한 소년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기 위해 애쓰는 한 녀교원을 형상한 작품이다.

1930년대 교육자를 형상한 소설문학의 특성은 다음으로 반일정신을 구현한것이다.

1930년대에 일제의 식민지파쏘통치는 더욱 악랄해졌으며 우리 인민들은 일제의 폭압앞에 굴복하지 않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로는 단편소설들인 《야학선생》, 《월파선생》, 《가책》, 《아버지소식》 같은 작품들이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일제를 반대하여 나선 주인공들의 형상을 투쟁속에서 밝히고있으며 이것은 그 이전시기 프로레타리아소설에서 주로 노동자, 농민을 계몽하고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설정되었던 사회운동자의 형상과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것이다.

단편소설 《아버지소식》은 집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는 어린 딸 영재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교육자들의 반일정신을 강하게 구현한 특색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불온교원으로 쫓겨난 후에도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철도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도하고 지하에 들어가 투쟁을 계속하다가 체포되어 희생되는 영재 아버지와 그와 손잡고 투쟁하다가 체포되어가는 영재의 선생 등의 형상을 통하여 파쏘적탄압이 악랄해지고 조건

이 불리해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맞서 싸워나가는 진보적인 교원들의 견결한 반일투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단편소설 《가책》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여 싸우는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교육자인 권선생의 형상을 창조한 작품이다. 소설은 권선생과 함께 일하던 녀선생의 회상을 통하여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하던 정열적인 교원인 권선생이 일제의 탄압으로 학교에서 해고되거나중에는 수배령까지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나가는 이야기를 통하여 교육자들의 반일정신과 투쟁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월파선생》은 시대의 변천을 따라가지 못하여 끝내 문을 닫고마는 《시중의숙》의 월파선생의 시점에서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벌리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어가는 박선생의 불굴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그런가 하면 단편소설 《야학선생》은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투쟁으로 농민들을 고무하는 야학선생 평철의 형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특색있다.

1930년대 교육자를 형상한 소설문학의 특성은 다음으로 교육자들이 겪는 수난과 그들의 운명을 중요한 형상과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한것이다.

교육자를 형상한 작품들중에서 많은 부분이 교육자들이 겪는 생활적인 불행, 그들의 고민과 모대김, 지향과 리상을 반영하고 있다.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하나의 경향적인 흐름을 이루면서 왕성한 창작적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작품들로는 단편소설들인 《김강사와 교수》, 《음악교원》, 《문서》, 《도전》, 《제조교사》 등이 있다.

교육자들의 생활과 운명을 다룬 작품들에

서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강요당한 교육자들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처지가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단편소설 《김강사와 교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교에서 강사를 하는 지식인청년의 어려운 처지와 정신적고충을 통하여 일제침략자들의 악랄성과 교활성을 폭로한 작품이다. 소설에서는 김만필과 교수와의 미묘한 관계를 통하여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며 식민지사회에서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교원들이 대바르게 살아나가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것을 특색있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체조교사》는 고보에서 체조교사로 일하던 철구의 불행과 고통, 불우한 처지를 보여주고있는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 철구는 민족수난기 우리 교육자들이 당하던 수난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는 인물이다. 량심적이고 남다른 뜻과 정열, 재능도 있지만 끝내는 불행에 빠지는 주인공의 형상에는 일제가 저들에게 굴종하지 않는 조선사람들과 량심적인 교육자들을 어떻게 박대하고 수난으로 떠밀었으며 불행을 강요하였는가 하는것이 사실주의적으로 그려져있다.

폐교당한 학원을 다시 일떠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던 한 교장의 노력이 간상배들에 의하여 룡락되는 이야기를 담고있는 단편소설 《문서》도 해방전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고통받던 진보적인 교육자들의 운명문제를 제기하고있는 작품이다.

해방전 교육자들의 생활과 운명문제를 다루면서 진보적인 교원들의 민족적량심을 그들의 리상, 지향과 결부하여 보여주는 작품들도 창작되었다.

단편소설 《음악교원》은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교원의 불행과 고민을 그리면서 봄과

새벽에 의탁된 리상세계의 높이를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에서 음악교원 순천의 생활적고통과 수난, 리상세계는 일제의 파썸적폭압의 강화로 말미암아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교육현실의 바탕우에서 그려지고있다. 작품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음악창작의 길을 걸어왔으며 또 그 길을 계속 힘있게 걸어나가리라는 신심과 결의로 불타는 순천의 리상을 새벽에 비유하여 형상함으로써 가혹한 현실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교육자들의 리상의 높이를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도전》도 교육자들의 불행과 그들의 지향, 리상세계를 보여주고있는 작품이다. 소설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하수인으로 살지 않을 결심을 품고 교원생활을 그만두는 량심적이며 억센 교육자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1930년대 교육자를 형상한 소설들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면모를 진실하게 형상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교육자들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에 맞서 싸워야 하며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민족의 앞날인 후대들을 키워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고있다.

특히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교육자들의 형상을 창조한 소설들은 해방전 진보적문학 전반에서도 사상예술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다.

해방전 교육자들을 형상한 작품들은 그 진보적인 측면과 함께 일제의 가혹한 언론탄압과 작가들의 사상미학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해방전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교육자를 형상한 소설들은 당시 우리 인민과 교육자들을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고무하였으며 민족수난기 소설문학의 유산을 풍부히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